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과 환경 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캠핑 경험, 빈도, 유형을 중심으로 -

박은정** · 서은정*** · 송영근****

Exploratory Study on Camping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Competenc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Camping Experience, Frequency and Types -

Eunjeong Park** · Eunjung Seo*** · Youngkuen Song****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캠핑 경험, 캠핑 활동 빈도, 캠핑 활동 유형에 따라 환경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한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경험의 여부, 캠핑 활동 빈도, 캠핑 활동 유형은 전체적인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하위 환경 역량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핑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고,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캠핑 활동 빈도가 높은 초등학생은 빈도가 적은 학생보다 자신의 습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며, 전 세계의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 영상을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 환경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셋째, 소비 유형의 캠핑을 한 초등학생이 감상과 스포츠 유형의 캠핑을 한 학생보다 환경 쟁점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캠핑, 캠핑 경험, 캠핑 활동 유형, 환경 교육, 환경 역량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competencie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ir camping experiences, frequency of camping activities, and types of camping activit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overall,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factors of environmental competencies based on whether elementary students had camping experience, the frequency of camping activities, or the types of camping activities. However, some specific items within the sub-factors of environmental competenc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tudents with camping experience tended to enjoy participating in nature-based ecological activities and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mselves as important contributors to solving local community issues compared to students without camping experience. Second, elementary students with higher frequencies of camping activities demonstrated awareness of the impact of their habits on the environment, expressed

* 본 논문은 송영근의 지도로 작성한 박은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발췌해 수정·발전시킨 것임.

** 인천송의초등학교 교사(Teacher, Soongwi Elementary School), ladygirl7@snu.ac.kr

*** 목포대학교 환경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Mokpo National University), yellow99@mnu.ac.kr

**** 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ngyoung@snu.ac.kr

interest in global environmental issues, exhibited a capacity to retain environmental images for an extended period, and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express their feelings about the environment through songs or drawings. Third, elementary students who engaged in camping with a focus on consumption were more adept at grasping important content related to environmental issues than students participating in appreciation and sports-oriented camping. Additionally, they exhibited a higher ability to articulate their thoughts on these issues verbally.

Key words: camping experience, camping, types of camping activity, environmental education, environmental competency

I. 서론

2000년대 들어 주 5일제가 시행되었고, 2018년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이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에 자연스럽게 개인의 여가 시간도 2018년 3.9시간에서 2021년 4.4시간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이 여가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그중에서도 자연 체험 활동, 특히 캠핑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특허청, 2021).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사람들이 실외 공간과 적합한 장소를 선호하게 된 영향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캠핑은 인위적이지 않은 야생의 자연환경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 및 사회적 상호작용 향상(Burch, 1965; Garst *et al.*, 2009; Williams and Van Patten, 2006),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유능감, 자존감 증진 등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Bennett *et al.*, 1998; Holman and Jacquart, 1988)이 되고,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다양한 생물 종(種)을 접할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다. 이처럼 캠핑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자연 체험 활동처럼 사람들의 환경 역량과 환경 행동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캠핑이 환경 역량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관광공사(2021)의 캠핑산업 기초통계 조사에 따르면, 캠핑산업 규모는 2020년 5조 8천억으로 전년도와 비교해(2019년 3조 1천억) 9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기남 외(2015)와 함선옥 외(2018)의 캠핑장과 캠핑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연 캠핑장보다 시설이 갖춰진 전문 캠핑장을 선호하며, 바비큐를 포함한 요리와 모닥불 놀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캠핑문화는 캠핑 장비의 구매,

자연을 온전히 향유하기보다는 소모하고 이용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캠핑 활동이 캠핑의 환경 역량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해 보기는 어렵다.

여가 활동으로서의 자연 체험 활동은 자연환경 속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환경교육 측면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가 활동인 캠핑은 캠핑산업 규모의 확대와 환경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우려의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의 장(場)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핑 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후, 캠핑 활동 경험 여부와 빈도, 활동 유형에 따라 환경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캠핑의 정의와 요소

캠핑은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한 형태로 기본적인 텐트(Tent), 캐빈(Cabin)부터 RV(Recreational Vehicle), 캐러밴(Caravan) 등의 숙소를 준비하여 최소 1박 이상의 짧은 기간 동안 생활하고 숙박하는 것이다(Brooker and Joppe, 2013; Brooker and Joppe, 2014). 교육적인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캠핑은 야외의 환경을 활용하여 인간의 지적·신체적·영적 또는 정서적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공동생활을 하는 교육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경험이다(송병국 외, 2002).

캠핑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활동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어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자연 체험 활동이기도 하다(Anderson, 1979; Gursoy and Chen, 2012). 고대의 캠핑은 생존을 위해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형태였던 반면, 현대의 캠핑은 사람들이 휴양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체험한다는 점에

서 고대보다 직접적이고 순수한 목적의 자연 체험(김홍일·고종보, 2012; Louv, 2008)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뀔 때 따라 캠핑의 형태도 조금씩 변화하였는데, 캠핑의 유형 중 하나인 글램핑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글램핑은 ‘매력적인, 고급스러운’을 뜻하는 ‘glamour’에 ‘camping’이 합쳐진 말로(Adamovich *et al.*, 2021), 2005년부터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2016년 6월에는 옥스퍼드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단어가 공식적으로 추가되었다(Adamovich *et al.*, 2021). 이러한 어원에 따라 글램핑은 고급스러운 숙소와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숙박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캠핑이나 글램핑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다. 자연과의 근접성(Ahn and Lee, 2015; Brochado and Brochado, 2019; Filipe *et al.*, 2018; Garst *et al.*, 2009; Gratton *et al.*, 2015), 편안함, 야외활동(Craig, 2021; Hong *et al.*, 2020; Rice *et al.*, 2020)이다. 거기에 코로나19(COVID-19) 이후에는 타인과의 거리 유지(Craig, 2021)도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 즉 캠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자연과 가까운 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주위에 자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있어야 한다.

캠핑과 글램핑은 비용, 사생활 보호, 편의성, 기간 및 설치 용이성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Adamovich *et al.*, 2021). 글램핑은 캠핑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생활을 보호하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고 설치가 용이하다(Adamovich *et al.*, 2021; Brooker and Joppe, 2013). 이러한 이유로 현대의 사람들은 이전 방식의 캠핑보다 글램핑을 선호한다. 즉, 사람들은 편리하고 편안하며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자연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도(Garst *et al.*, 2009) 차이가 있다. 은퇴자나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RV를 이용한 캠핑을 하지만, 글램핑은 캠핑을 해 본 적이 없는 초보자나 특정 활동을 즐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한다(Cordell *et al.*, 1999; Garst *et al.*, 2009).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숙박 시설이 없는 야외의 장소나 ‘캠핑장, 글램핑장’이라는 명칭이 붙은 장소에서 장비를 사용해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해결하고, 주로 1박 이상의 숙박하는 행위를 캠핑으로 정의하였다.

2. 국내외 캠핑의 특징과 활동 유형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캠핑이 유행하고 있지만, 캠핑문화 측면에서는 국내와 해외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주형(2013)의 연구에 따르면, 서유럽과 한국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녹지공간 방문 빈도에 대한 문항에서 주 1회 이상 녹지공간을 방문한다고 응답한 서유럽의 도시민 비율(64%)이 한국(29%)보다 높았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서유럽 시민이 응답한 스포츠(22%)와 자연 체험(15%)의 비율이 한국의 응답 비율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이주형, 2013). 이 결과를 통해 한국의 캠퍼는 서유럽의 캠퍼처럼 자연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캠핑을 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 특허청(2021)의 캠핑용품 관련 디자인 출원 조사에서 디자인 등록 건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6.3%로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캠핑용 수납 용품, 캠핑카 용품, 난방기구 등에서 출원량이 많았는데, 이는 캠핑을 위한 캠핑용품 구매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캠핑 문화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 캠핑문화의 특징은 직접적인 자연 체험으로 대표되는 캠핑 본연의 의미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며(전부기 외, 2015), 캠핑 활동을 위한 소비 행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국내외의 다른 캠핑문화는 야외 레크리에이션 역사의 장단(長短)과도 관련이 있다. 먼저 해외에서는 캠핑을 비롯한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오랜 시간 동안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Dunlap and Heffernan(1975)은 야외활동(Outdoor Recreational Activities)을 감상 활동(Appreciative activity)과 소비 활동(Consumptive activity),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감상 활동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활동으로, 등산, 캠핑, 사진찍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반면 소비 활동은 자연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가고 사용하는 활동으로, 사냥이나 낚시가 해당한다. 이후 Geiser *et al.*(1977)은 Dunlap and Heffernan(1975)의 연구를 재연구하는 과정에서 학대 활동(Abusive activity)을 추가하였다. 학대 활동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악화시키는 활동으로, 스노모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국내에서는 해외의 연구처럼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의 캠핑 활동을 조사하고 선행연구

표 1. 국내 캠핑 활동의 유형과 특징

캠핑 활동 유형	특징	예
감상 활동 (Appreciative camping activity)	캠핑장 주변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활동	산책, 등산, 사진찍기
스포츠 활동 (Sports camping activity)	캠핑장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해 스포츠를 하는 활동	레저스포츠 (수영, 스노클링 등), 자전거 타기, 낚시
소비 활동 (Consumptive camping activity)	캠핑장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	모닥불 놀이, 바비큐 등 요리

를 종합한 후, 해외의 야외활동 분류를 국내 캠핑문화에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국내 캠핑 활동의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3. 환경 역량

현재 운영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 2014).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교육목표는 학생의 역량 함양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 이 핵심역량을 습득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서은정, 2017). 환경 교육과정도 학습자가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환경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은 환경에 관한 단순한 행동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역량(서은정·류재명, 2014)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환경 지식을 아는지보다 실제 문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서은정, 2017). 따라서 환경 교과 역량으로 여섯 가지가 선정되었고, 성찰·통찰 역량, 환경정보 활용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환경 감수성,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 환경 공동체 역량이다.

첫째, 성찰·통찰 역량은 다양한 지식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성찰, 반성적 사고, 통합적 사고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환경정보 활용 역량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평가하고, 적절한 도구나 매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하위 요소로는 문제 인식, 도구(매체) 활용 능력 등이 있다. 셋째,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에 해당하는 요소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이 있다. 넷째, 환경 감수성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경의 아름다움이나 고통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다. 하위 요소는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상 능력, 자연 및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등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환경 감수성을 이러한 정의적 특성으로 나타냈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도 있었다. 이재봉·이두곤(2006)은 “환경, 환경 문제에 대한 상황, 느낌,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으로도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미적 감상 능력이나 공감 능력을 가리키는 정의적 특성과 더불어 환경 쟁점에 대한 민감성,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임감, 환경 쟁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감수성으로 정의하였다. 다섯째,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은 다양한 언어, 상징, 매체 등을 활용해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고, 갈등 상황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과 의사결정력 등이 해당한다. 여섯째, 환경공동체 의식은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환경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공동체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다. 환경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섯 가지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와 의미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환경 역량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환경 역량에 미치는 영향(박경옥·이상원, 2017; 장미정 외, 2018)을 알아보는 연구이다. 둘째는 환경 역량 검사 도구의 개발(정희라 외, 2020; Daskolia and Flogaitis, 2003; Panganiban-Lualhati,

표 2.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와 의미

환경 역량	의미	하위 요소
성찰·통찰 역량	다양한 지식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통합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행위가 자신, 타인, 자연의 원칙에 맞는지 지속적·의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율성, 자기성찰, 환경에 대한 성찰, 반성적 사고력, 통합적 사고력
환경정보 활용 역량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하고, 도구나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문제 인식·정보와 자료 수집·분석·평가·선택하는 능력, 도구(매체) 활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효과적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적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실천적 추론,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환경 감수성 역량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환경의 아름다움이나 고통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감하는 능력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상 능력, 타자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자연 및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환경 쟁점에 대한 민감성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	언어, 상징, 텍스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갈등 상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능력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 의사결정력
환경공동체 의식 역량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환경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실천하고, 지구 공동체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	환경의식, 환경관, 참여와 책임 의식, 환경윤리, 배려, 협동

출처: 권영락 외, 2016와 서은정, 2017을 참고하여 재구성

2017)과 환경 교과 역량 자체에 관한 연구(권영락 외, 2015; 서은정·류재명, 2014; 서은정, 2017)이다. 본 연구는 초등 학생의 캠핑 활동 경험과 빈도, 유형에 따라 환경 역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여가와 환경교육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환경 역량을 적용한 연구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캠핑 경험에 초점을 두어 캠핑 경험 여부, 캠핑 활동 빈도와 캠핑 활동 유형을 알아보고, 환경 역량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한 개념을 탐색하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개념으로 캠핑, 환경 역량을 추출하였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앞선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와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가설을 세우고,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도구를 개발하였다. 검사 도구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캠핑 활동의 특성,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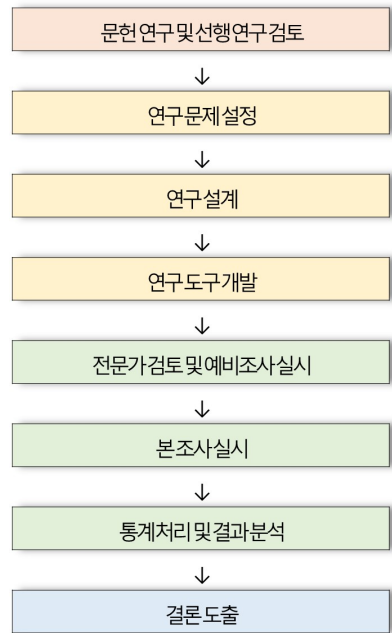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

역량 도구를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연구 도구 제작 후, 환경교육 전문가 3인과 현장 교사 2인의 검토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

과는 SPSS statistics 25.0 vers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인천광역시 소재 S초등학교 5학년 학생 228명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교과 및 비교과에서 환경에 관한 주제로 학습을 해 본 경험이 있고, 설문에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S 초등학교의 경우, 2022년부터 학교 주변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환경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겪고 있고, 2023년부터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¹⁾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5학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S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5학년 9학급 학생 235명이 대상이었으

나, 7명의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으로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표집한 학생 수는 228명이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캠핑 활동과 환경 역량이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기본적인 캠핑 활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캠핑 경험을 묻고, 빈도와 동기, 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은 한국관광공사(2021), Dunlap and Heffernan(1975), Geiser *et al.*(1977)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초등학생과 국내의 캠핑 상황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였다.

환경 역량 측정 도구는 정희라 외(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환경 역량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기존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표 3. 환경 역량의 하위 영역 및 문항

환경 역량	하위 요소
성찰통찰 역량	나는 앞으로 해결하고 싶은 환경 문제가 있다.
	나의 평소 습관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나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나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
	나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구 반대편 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환경정보 활용 및 문제 해결 역량	나는 환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본다.
	나는 책이나 인터넷, 사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바꿀 수 있다.
환경 감수성 역량	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환경보호 행동을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다.
	나는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환경에 관한 영상을 보고 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나는 계절에 따라 자연이 달라지는 모습에 관심을 가진다.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	나는 환경에 대한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나는 에너지 절약 방법을 친구들에게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환경공동체 역량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해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들을 설득할 수 있다.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학교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규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학교나 마을의 환경보호 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개의 문항이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으로 나타나 제외하였고, KMO 측도는 .84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한 측정 도구는 5개의 환경 역량(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역량, 환경정보 활용 및 문제해결 역량, 환경공동체 역량, 성찰·통찰 역량, 환경감수성 역량)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양식은 5단계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신뢰도는 .915이었다. 본 연구 도구의 하위 영역 및 문항은 표 3과 같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예비조사는 서울특별시 소재 E 초등학교의 5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2023년 4월 10일에서 14일까지 이루어졌다. 해당 학급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25명의 연구 참여자가 응답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신뢰도 검증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회수율 100%로 5학년 9개 학급 학생 228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이상치로 나타난 사례 등 13부를 제외하여 총 215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 version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등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가 알아보고자 한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경험의 여부, 캠핑 활동 빈도, 캠핑 활동 유형은 전체 환경 역량이라 할 수 있는 여섯 가지의 하위 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몇 가지 하위 환경 역량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과 환경 역량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파악하는 탐색적 연구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기술하고, 캠핑 활동과 환경 역량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1. 캠핑 활동 경험에 따른 환경 역량의 차이

초등학생의 캠핑을 한 번이라도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전혀 경험하지 않은 학생 간에 환경 역량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경험 여부는 환경 역량의 모든 하위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환경 감수성 역량’의 두 문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유의한 차이를 보인 첫 번째 문항은 “나는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이다. 이 문항에서 캠핑을 경험해 본 집단($M=3.75$)이 경험이 없는 집단($M=3.37$)보다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답변했다($t=2.40, p<.05$). 캠핑을 경험한 집단은 리커트 척도 ‘④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캠핑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리커트 척도 ‘③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캠핑 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연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항은 “나는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이다. 이 문항에서도 캠핑을 경험해 본 집단 ($M=2.95$)이 경험이 없는 집단 ($M=2.59$)보다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한 것으

표 4. 캠핑 활동 경험에 따른 환경 감수성 역량의 차이

문항	캠핑 경험	N	M(SD)	t	p
나는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있음	147	3.75(1.05)	2.40*	.017
	없음	68	3.37(1.16)		
나는 우리 마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있음	147	2.95(0.99)	2.36*	.019
	없음	68	2.59(1.14)		

* $p<.05$, ** $p<.01$

로 나타났다($t=2.36, p<.019$). 평균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보이지만, 캠핑을 경험한 집단이 리커트 척도 ‘③보통이다’에 응답한 비율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환경 감수성 역량에는 환경 쟁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가족과 했던 캠핑 활동이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캠핑 활동 빈도에 따른 환경 역량의 차이

연구 참여자의 캠핑 활동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캠핑 경험이 있는 14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캠핑하는지를 묻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1년에 1~2회

표 5. 캠핑 경험이 있는 학생의 활동 빈도

캠핑 활동 빈도	집단	빈도(명)	비율(%)
1년에 1~2회 정도	거의 안 함	96	65.3
1년에 3~5회 정도	중간	22	15.0
1년에 6회 이상		16	10.9
한 달에 2~3회 정도	자주	8	5.4
한 달에 1회 정도		5	3.4
전체		147	100.0

정도로 캠핑하는 학생을 ‘거의 안 함’으로, 1년에 3~5회 정도와 1년에 6회 이상 캠핑하는 학생을 ‘중간’으로, 한 달에 2~3회 정도와 한 달에 1회 정도로 캠핑하는 학생을 ‘자주’로 분류하였다.

초등학생의 캠핑 경험자 중에서 활동 빈도(거의 안 함, 중간, 자주 함)에 따라 환경 역량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빈도는 환경 역량의 모든 하위 요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캠핑 활동 경험처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역량의 하위 요소인 ‘성찰·통찰 역량’의 두 문항과 ‘환경 감수성 역량’의 두 문항, 총 네 개의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먼저 성찰·통찰 역량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문항인 “나의 평소 습관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488, p<.01$). 이 문항에서 캠핑을 자주 한 학생($M=4.23$)은 캠핑을 거의 하지 않은 학생($M=3.65$)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습관을 일상생활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찰·통찰 역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두 번째 문항은 “나는 지구 반대편 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이다($F=3.627, p<.05$). 이 문항은 환경에 대한 지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캠핑을 자주 한 학생($M=3.46$)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간적인 특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캠핑 활동이 학생의 환경에

표 6. 캠핑 활동 빈도에 따른 환경 역량의 차이

하위 영역	문항	활동 빈도	N	M(SD)	F
성찰·통찰 역량	나의 평소 습관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거의 안 함	96	3.65(0.85)	5.488**
		중간	38	3.32(0.96)	
		자주	13	4.23(0.83)	
	나는 지구 반대편 나라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거의 안 함	96	2.80(1.13)	3.627*
		중간	38	3.29(1.25)	
		자주	13	3.46(1.05)	
환경 감수성 역량	나는 환경에 관한 영상을 보고 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거의 안 함	96	3.30(1.00)	3.444*
		중간	38	3.68(0.87)	
		자주	13	3.85(0.80)	
	나는 환경에 대한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의 안 함	96	2.80(1.19)	3.446*
		중간	38	3.39(1.33)	
		자주	13	3.23(1.17)	

* $p<.05$, ** $p<.01$

대한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환경 감수성 역량에서 첫 번째 문항인 “나는 환경에 관한 영상을 보고 나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444, p<.05$). 캠핑을 거의 하지 않는 학생($M=3.30$)보다 중간 정도로 하거나($M=3.68$) 자주 하는 학생($M=3.85$)이 환경 영상에 대한 잔상이 더 오래 남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 번째 문항은 “나는 환경에 대한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였는데 이 역시도 캠핑을 자주 하지 않은 학생($M=2.80$)보다 중간에서 자주 하는 학생($M=3.39, M=3.23$)이 더 높게 나타났다($F=3.446, p<.05$).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캠핑 경험의 여부가 환경 감수성 역량에 차이를 가져온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캠핑을 자주 하면 할수록 학생은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상 능력, 공감 능력 등이 발달하게 되므로 감수성 역량에 차이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3. 캠핑 활동 유형에 따른 환경 역량의 차이

본 연구에서 캠핑 활동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감상 활동, 스포츠 활동, 소비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캠핑 활동에서 감상 활동은 캠핑장 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즐기는 활동이고, 스포츠 활동은 캠핑장 주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신체 운동이다. 소비 활동은 캠핑장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다.

연구 참여자의 캠핑 활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캠핑 경험이 있는 147명의 학생에게 캠핑 활동 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물었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소비 유형의 캠핑 활동을 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71명, 48.3%), 다음으로는 감상(39명, 26.5%)과 스포츠 유형(37명, 25.2%)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캠핑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캠핑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중 활동 유형(감상, 스포츠, 소비)에 따라 환경 역량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초등학생의 캠핑 활동 유형은 전체 환경 역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의 두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8).

첫 번째 문항인 “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에서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감상 활동(a)이나 스포츠 활동(b)을 주로 하는 학생보다 소비 활동(c)을 하는 학생이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b<c).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다른 문항은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이다($p<.05$). 이 문항에서도 소비 활동(c)을 하는 학생이 감상 활동(a)을 하는 학생보다 환경 문제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c). 환경 문제의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발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캠핑 경험이 있는 학생의 캠핑 활동 유형

캠핑 활동 유형	빈도(명)	비율(%)
감상 활동	39	26.5
스포츠 활동	37	25.2
소비 활동	71	48.3
전체	147	100.0

표 8. 캠핑 활동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역량의 차이

문항	활동 유형	N	M(SD)	F	Scheffe
나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나의 생각을 말로 전달할 수 있다.	감상(a)	39	3.00(0.61)	3.679*	a,b<c
	스포츠(b)	37	2.97(0.83)		
	소비(c)	71	3.34(0.84)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친구들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감상(a)	39	3.08(0.87)	3.827*	a<c
	스포츠(b)	37	3.22(0.75)		
	소비(c)	71	3.52(0.89)		

* $p<.05$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핑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자연생태 체험 활동에 참여하기를 선호하였고,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을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캠핑 활동 빈도가 높은 초등학생은 빈도가 적은 학생보다 자신의 습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할 줄 알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에 관한 영상을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 환경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노래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셋째, 소비 유형의 캠핑을 한 초등학생이 감상과 스포츠 유형의 캠핑을 한 학생보다 환경 쟁점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캠핑을 하면서 전반적인 환경 역량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초등학생 시기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학생의 환경 인식과 환경 태도, 환경 감수성 등의 정서적 능력 및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강영식, 2015; 고성우·홍승호, 2010; 김정숙·정미선, 2009; 최현정·윤여창, 2000). 본 연구를 통해 캠핑도 환경 역량 발달의 일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캠핑을 경험한 학생은 자연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환경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반성할 수 있으며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캠핑을 경험한 학생에게는 부족한 환경 역량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캠핑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환경 역량이 함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교내 환경 동아리를 조직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환경 문제를 주제로 토의·토론하기 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학급 차원에서는 교과와 연계하여 다

양한 매체를 활용한 환경 학습 자료를 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1인 1역할을 배정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체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캠핑장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배출, 친환경 상품과 관련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캠핑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고려한 캠핑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학습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의 소비 중심의 캠핑 문화에서 친환경 문화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

둘째, 자연 체험 활동 유형의 제시와 각각의 유형에 알맞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야외활동을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활동 유형에 따라 환경태도와 환경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Hoover, 2021; Thapa, 2010)한 결과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 레크레이션의 전문화 수준으로 분류된 그룹에 따라 친환경 행동 양상을 파악한 국내 연구(김현정 외, 2014)의 결과와도 다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캠핑의 유형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캠핑을 포함한 자연 체험 활동의 유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캠핑 활동은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소비 활동(예: 모닥불 놀이, 바비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캠핑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활동 유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므로 학생들이 자연 체험 활동 유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환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 체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환경교육에서 다양한 자연 체험의 종류와 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각각의 활동 유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실천함으로써 환경 행동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 방법에 적합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선정하였지만, 표본의 크기

가 200여 명에 지나지 않고 연구 지역의 특성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비슷한 지역의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또는 다른 지역의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서로 비교하고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환경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 성별, 가정환경, 학습 수준의 차이 등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 짧은 연구 기간에 연구자가 이러한 변인을 통제하고 실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변인을 통제하여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

1)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835개 등에 대해 총 18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등 네 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수법 적용과 미래형 교육 과정을 구현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등 시민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2023).

참고문헌

- 강영식, 2015, “숲 체험활동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6(8), 5189-5197.
- 고성우·홍승호, 2010, “제주 곳자왓 숲 자연 놀이 체험 학습이 초등학생의 환경 감수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교육, 23(3), 97-114.
- 권기남·이주혁·이정래, 2015, “인문,사회과학편 : 캠핑활동의 사회문화적 의미 읽기”, 한국체육학회지, 54(4), 123-137.
- 권영락·이재영·김찬국·안재정·서은정·남윤희·박은화·최소영·안유민, 2016, “2015 개정 환경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 환경교육, 29(4), 363-383.
- 김정숙·정미선, 2009, “뒤틀린 체험 활동이 아동의 환경 감수성과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환경교육, 22(4), 14-25.
- 김현정·유광민·김남조, 2014, “가치, 기후변화 문제지각 및 개인적 책임이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26(4), 43-66.
- 김홍일·고종보, 2012, “오토캠핑 마니아의 동기에 관한 연구”, 관광학 연구, 36(5), 199-219.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 박경옥·이상원, 2017, “환경기념일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초·중학생의 환경교육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교육, 28(3), 91-108.
- 서은정·류재명, 2014, “환경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역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2), 109-123.
- 서은정, 2017, “2015 개정 환경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탐색”, 환경교육, 30(3), 237-250.
- 송병국·오해섭·이채식·오대진, 2002, “청소년의 야영활동 참여와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1), 121-130.
- 이재봉·이두근, 2006, “환경감수성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 개발과 이를 이용한 환경감수성 측정”, 환경교육, 19(3), 138-149.
- 이주형, 2013, “도시농지공간에서의 휴양형태 및 태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7(4), 41-47.
- 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2023, 인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업무 매뉴얼.
- 장미정·임수정·정철·홍선욱·이종명, 2018, “해양환경소양과 핵심역량에 기초한 초·중학교 해양환경교육 교재 개발”, 환경교육, 31(2), 153-166.
- 전부기·서보옥·김도연·이주형, 2015, “자연체험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태캠핑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9(2), 63-76.
- 정희라·최지선·백성희, 2020, “초등학생 환경역량 검사도구의 개발”, 환경교육, 33(4), 364-376.
- 최현정·윤여창, 2000, “환경보전 행위와 자연관련 경험과의 관계 연구”, 환경교육, 13(1), 53-64.
- 함선욱·김혜지·김학준, 2018, “캠핑 이용자의 소비행동 분석”, 관광레저연구, 30(10), 79-94.
- 한국관광공사, 2021, 2020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 Adamovich, V., Nadda, V., Kot, M., and Haque, A., 2021, Camping vs. Glamping Tourism: Providers' Perspective in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Tourism*, 12(6), 1431-1441.
- Ahn, C. S. and Lee, M. S. W., 2015, *Adventure campers, fairy tale*

- glampers, and authenticity*, In 6th Advances in Tourism Marketing Conference, Joensuu, Finland.
- Anderson, C. V., 1979, Camping history. In Graendorf, W. C. & Mattson, L. D.(Eds.), *Introduction to Christian camping* (pp. 33-47), Chicago, IL: Moody Press.
- Bennett, L. W., Cardone, S., and Jarczyk, J., 1998, Effects of a therapeutic camping program on addiction recovery: The Algonquin Haymarket relapse prevention program,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5(5), 469-474.
- Brochado, A. and Brochado, F., 2019, 'What makes a glamping experience great?',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Technology*, 10(1), 15-27.
- Brooker, E., and Joppe, M., 2013, Trends in camping and outdoor hospitality-An international review, *Journal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3, 1-6.
- _____, 2014, A critical review of camping research and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0(4), 335-351.
- Burch Jr, W. R., 1965, The play world of camping: Research into the social meaning of outdoor recre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5), 604-612.
- Cordell, H. K., Betz, C. J., Bowker, J. M., English, D. B. K., Mou, S. H., and Bergstrom, J., 1999, *Outdoor recreation in American life: A national assessment of demand and supply trends*, Champaign, IL: Sagamore Publishing.
- Craig, C. A., 2020, Camping, glamping, and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89, 103071.
- Daskolia, M. and Flogaitis, E., 2003, Theoretical Formulation and Empirical Investigation of a Conceptual Model of Teachers' Competence in Environmental Education, *Canadian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8(1), 249-267.
- Dunlap, R. E. and Heffernan, R. B., 1975, Outdoor recreation and environmental concern: An empirical examination, *Rural sociology*, 40(1), 18-30.
- Filipe, S., Santos, C. A., and Barbosa, B., 2018, *TOURISTS' MOTIVATIONS AND OBSTACLES FOR CHOOSING GLAMPING: AN EXPLORATORY STUDY*, In CBU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 Garst, B. A., Williams, D. R., and Roggenbuck, J. W., 2009, Exploring early twenty-first century developed forest camping experiences and meanings, *Leisure Sciences*, 32(1), 90-107.
- Geisler, C. C., Martinson, O. B., and Wilkening, E. A., 1977, Outdoor recreation and environmental concern: A restudy, *Rural sociology*, 42(2), 241-249.
- Gratton, D., Raciti, M., and Walters, G., 2015, Back to nature: Festivalgoer environmental beliefs and camping experience at non-urban festivals, *International Journal of Event and Festival Management*, 6(3), 282-302.
- Gursoy, D. and Chen, B. T., 2012, Factors influencing camping behavior: The case of Taiwan, *Journal of Hospitality/Marketing & Management*, 21(6), 659-678.
- Holman, T. B. and Jacquart, M., 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9-77.
- Hong, Y., Cai, G., Mo, Z., Gao, W., Xu, L., Jiang, Y., and Jiang, J.,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tourist satisfaction with B&B in Zhejiang, China: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0), 3747.
- Hoover, K. S., 2021, Children in natur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outdoor experience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27(6), 894-910.
- Louv, R., 2008, *Last Child in the Woods: Saving our Children from Nature-Deficit Disorder*, Algonquin Books of Chapel Hill.
- Panganiban-Lualhati, G., 2017, Filipino student teachers' environmental competencies: Basis for development of a training module, *Asia Pacific Journal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5(1), 62-72.
- Rice, W. L., Mateer, T., Taff, B. D., Lawhon, B., Reigner, N., and Newman, P., 2020,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to change the way people react outdoor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Recreation, Parks, and Tourism Management*. <https://doi.org/10.31235/osf.io/dghba>.
- Thapa, B., 2010, The mediation effect of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on environmental attitude-behavior correspondence,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41(3), 133-150.
- Williams, D. R. and Van Patten, S. R., 2006, Home and away? Creating identities and sustaining places in a multicentered world, In McIntyre, N., Williams, D. R., and McHugh, K. E. (Eds.), *Multiple dwelling and tourism: Negotiating place, home, and identity*, MA: CABI Publishing, 32-50.
- 교육부, 2014년9월24일자,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510>, 2023년 4월 10일 접속).

특허청, 2021년9월23일자, “코로나 피해 야외로, 캠핑 한번 떠나볼까요?”,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124>, 2023년 3월 3일 접속).

접 수 일 : 2023. 12. 15

수 정 일 : 2024. 02. 27

게재확정일 : 2024. 02. 29

교신: 송영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환경
조경학과 부교수(songyoung@snu.ac.kr, 02-880-8860)
Correspondence: Youngkuen Song, songyoung@snu.ac.kr